



버스 주차장 전략한 제주종합경기장

시민들 “무질서 판쳐… 주차구역 정리 필요”
제주시, 유료주차장 전환 등 다양한 방안 검토

제주종합경기장이 대형버스 주차장으로 전락하면서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6일 제주종합경기장 시계탑 앞 공터 곳곳에는 공영·전세버스 등 수십대 버스가 주차돼 있었다. 일부 버스는 중앙 통행로를 따라 길게 세워져 있었다. 이로 인해 종합경기장을 찾은 일반 차량 운전자들은 시야 확보가 어려워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조심히 운행했다. 한 승용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이동하다 갑자기 튀어나온 차와 충돌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종합경기장을 찾은 시민 오모(35)씨는 “무질서하게 세워진 대형버스들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

워 사고가 날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수차례 행정에 민원도 넣어봤지만 몇년이 지나도록 바뀌지 않아 행정에서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넓은 부지에 지정된 주차공간도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아, 주차구역과 주행로 등 재정비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제주종합경기장 시계탑 인근 공터는 오래전부터 대형차량 운전자들이 주·정차 구역으로 사용해왔다. 이로 인해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뚜렷한 단속규정이 없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8월부터 종합경기장 부지 내 빗물관리시스템을 구



6일 제주종합경기장 시계탑 인근 공터에 대형버스들이 무질서하게 주차돼 있다. 김현석기자

축하기 위한 공사가 시작되면서 일부 주차장 사용이 제한돼 이같은 문제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송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은 “제주종합경기장 주차문제는 평일은 물론 각종 행사가 있을 때마다 오라·도남동 등 이 일대 지역이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는다”며 “주차문제만이 아닌 종합경기장 개선을 위한 구

체적인 기획안을 마련하고, 세부적인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제주시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공영 유료주차장으로의 전환 등 다양한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며 “시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니 만큼 시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개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물질 하던 70대 해녀 숨져

제주시 구좌읍 해상에서 물질에 나선 70대 해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6일 오후 2시28분쯤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우도 도항선 선착장 앞 해상에서 물질을 하던 해녀 윤모(79)씨가 의식을 잃고 물 위에 떠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윤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해경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월정 해수욕장서 ‘찰칵’ 6일 구좌읍 월정리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기념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상국기자

대마 밀수입 30대 집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대마를 피우고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국제 항공등기우편을 통해 대마 9.21g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 4월 인도 아랍불에서 대마를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27일 제주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단속반을 편성해 오후 1시부터 4시,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두차례 일제 단속을 한다. 단속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 한 차량이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

근 3년간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적발 건수는 2017년 28건, 2018년 55건, 올해 9월말 기준 46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1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소방용수시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승용차의 경우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상민기자

제주어 스피치 교실 운영

서귀포시 송악도서관이 지역 내 초등학교 학생을 위한 ‘제주어 스피치 교실’을 운영한다. 제주어 대화 능력을 키워 제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제주어 스피치 교실에선 속담과 옛 지명으로 제주어를 배우고 제주어 퀴즈를 풀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오후 2시부터 도서관 평생교육실에서 진행된다. 김지은기자

국내 생활 예멘인 체류 1년 연장

출입국외국인청 “인도적 차원 연장허가 요청 수용”

지난해 예멘 내전을 피해 제주에 온 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예멘인 중 94%가 1년 더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됐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을 신청한 사람 중 난민 요건(인종·종교적 박해 등)을 갖추지 못했지만 강제 추방을 당하면 생명 등에 위협을 받을 수 있어 한시적으로 국내에 머물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인도적 체류 허가 받아 국내에 머물고 있는 예멘인 412명 중 387명(93.9%)이 낸 ‘1년 체류 연장 신청’을 모두 수용했다고 6일 밝혔다.

나머지 25명은 체류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아직 연장 신청을 안했다.

지난해 제주에 온 예멘인 551명이 무더기로 난민 신청을 해 사회적으로 난민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는 이들 중 언론인 출신 2명에 대해선 “후터반군 등을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해 납치·살해·협박 등을 당했고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다”면서 난민으로 인정했다. 또 412명에 대해서는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추방 당하면 자국의 내전 상황 때문에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다”면서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당시 법무부는 이들의 인도적 체류 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한편, 1년

이 지나서도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싶으면 심사를 통해 체류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체류 연장 심사에서는 주로 그 나라 상황이 그간 얼마나 변했는지 등을 살펴봐 된다”면서 “예멘 내전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체류 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 412명 중 현재 제주에 머물고 있는 이는 71명이다. 나머지는 일 자리를 찾아 국내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 대다수가 제조업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올해를 기점으로 난민 신청은 급감했다. 올들어 지난 9월까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접수된 난민 신청은 20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50건에 견줘 82% 감소했다. 국적별로는 중국 87명, 인도 28명, 몽골 16명, 예멘 1명, 기타 77명이 난민 신청을 냈다. 이들 중 30명은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았고 150명은 현재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 9명은 이의신청을 했으며 나머지 20명은 난민 신청을 철회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난민 신청이 급감한 이유에 대해 “지난 해부터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가 11개국에서 24개국으로 확대되고, 또 인도적 체류허가 또는 난민으로 인정되기 전까지는 제주를 벗어날 수 없게 조치하고 있는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항공 오는 13일까지
내년 2~3월 항공권 할인

서귀포시, 점점반 편성
교통시설현장 특별점검

제주항공이 7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오후 5시까지 회원을 대상으로 2020년 2~3월에 탑승이 가능한 항공권을 할인하는 ‘JJ멤버스 워크’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이번 JJ멤버스 워크 특가는 유류 할증료와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편도 총액운임을 기준으로 김포, 청주, 부산, 대구, 광주-제주 노선은 2만400원부터 판매한다. 청주, 대구, 부산, 무안 제주~국제선은 7만2500원부터, 인천출발 국제선은 6만5100원부터 적용된다.

제주항공은 “예매일자와 환율변동에 따라 총액운임이 일부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경섭기자

서귀포시는 지역내 교통시설 현장을 돌아보고 문제점을 진단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3차 우리사업장 둘러보기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을 위해 점점반을 특별 편성하고 이달 말까지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점검은 노외주차장 433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와 하반기 착공 예정인 강정동, 서홍동 무료주차장 조성 공사현장에 집중된다. 지역내 설치된 188개소의 교통안전표지판과 253개소의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도 유지관리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태윤기자

노비타 스파비데 출시 기념 이벤트

“비데에 스파를 더하자
행운을 더하자!”

이벤트기간 | 9월 18일 ~ 10월 31일

당첨자 발표 | 11월 15일

노비타 제주점 (구, 제민일보 맞은편)

신광로터리 | 빙스 | 요양병원 | 신제주토터리

마리나사거리 | 마리나호텔

구입문의 제주대리점 064)758-0991

EVENT 01 구매 인증 경품 추첨 이벤트

1등 휴테크 안마의자

2등 24K 골드바 1돈 [5명]

3등 50000 원권

푸집한 경품

1등 휴테크 안마의자 17+ [1명]

2등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100명]

3등 백화점 상품권 5만원권 [10명]

4등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100명]

이벤트 대상 제품 BD-TE91M / BD-TD90M / BD-AFD500 / BD-WD60 / BD-AE91

EVENT 02 특별한 사은품 증정 이벤트

프리미엄 BD-TE91M

프리미엄 BD-TD90M

3D 워브 3way 노출 탈취

3way 노출 탈취

자동 디스펜서

6만원 상당의 정품 필터 (6개)

399,000원

379,000원

BD-AC50N

NEW BD-AE91

3way 노출 3D 워브

정품 필터 (2개)

199,000원

269,000원